

국내외 문헌정보학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 동향 분석

Trends Analysis of Open Access for Foreign and Domestic Scholarly Journals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윤 희 윤(Hee-Yoon Yoon)*

김 신 영(Sin-Young Kim)**

< 목 차 >

- | | |
|----------------------------------|---------------------------------|
| I. 서 론 | 1. 외국 오픈 액세스 학술지 및 아카이브의 동향과 과제 |
| II. 오픈 액세스 운동의 현황과 쟁점 | 2. 국내 오픈 액세스 운동의 동향과 지향성 |
| 1. 오픈 액세스 학술지의 현황과 영향 | IV. 결론 및 제언 |
| 2. 오픈 액세스 아카이브의 유형과 쟁점 | |
| III. 국내외 문헌정보학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 동향 분석 | |

초 록

도서관계, 연구 집단, 출판계로 구성되는 학술정보 유통시스템의 주요 관심사항은 학술지이며, 각각의 이해집단이 학술지에 거는 기대와 전략, 보상과 권리보호에 대한 서로의 입장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이러한 입장 차이가 결국 오픈 액세스 잡지와 오픈 액세스 아카이빙을 전략적 수단으로 하는 오픈 액세스 운동을 가시화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오픈 액세스의 동향과 한계를 정리하고,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오픈 액세스의 중심에서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논하던 국내외 문헌정보학 분야 오픈 액세스의 현주소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제어: 학술지, 오픈 액세스, 오픈 액세스 학술지, 오픈 액세스 아카이브, 문헌정보학, 기관 레포지터리

ABSTRACT

The major concern of scholarly communication system that consists of libraries, researchers, and publishers is scholarly journals. But there is a huge chasm between the groups that have their own respects and strategies, compensations, and rights about scholarly journals. This difference makes open access movement which has two strategies : Open Access Journal(OAJ) and Open Access Archives(OAA). This paper describes the current status and analyses serious limitations of OAJ and OAA, especially, including the present address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ey Words: Scholarly Journals, Open Access, Open Access Journal, Open Access Archive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stitutional Repository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hy@daegu.ac.kr) (제1저자)

** 대림대학 문헌정보과 강사(sinyoung@yu.ac.kr) (공동저자)

• 접수일: 2007년 2월 23일 • 최초심사일: 2007년 3월 5일 • 최종심사일: 2007년 3월 22일

I. 서론

인터넷 정보 커뮤니케이션은 인쇄잡지 중심의 학술정보 유통경로를 변화시키고 있어 도서관의 장서개발에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그 배경을 보면 출판계는 학술유통의 변화와 연구집단 및 도서관계의 전자잡지 선호경향을 주목하면서 이윤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 반면에 연구집단은 자신의 연구성과를 널리 배포하고 가시성을 제고시켜 피인용력을 확대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제한된 예산으로 최적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도서관은 자원공유, 전자잡지의 도입, 디지털 게이트웨이의 구축, 웹 자원의 개발 등에 주력해야 할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계, 연구집단, 도서관계로 구성되는 학술정보 유통시스템에서 여전히 주요 관심사는 학술지이며, 각 이해집단의 기대와 전략, 보상과 권리보호에 대한 입장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출판계의 인수합병과 학술지 가격의 상승전략 및 DB의 패키지화를 통한 이윤추구, 그에 따른 도서관계의 학술지 구독능력 감소,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아카이빙의 제한, 그리고 연구자의 학술유통 시스템에 대한 불만 등이 그것들이다. 이에 따라 도서관계와 연구집단이 대안으로 구상한 것이 오픈 액세스 학술지(OAJ : Open Access Journal)의 발행과 오픈 액세스 아카이브(OAA : Open Access Archive)의 구축이다.

오픈 액세스 운동은 최근의 연구자와 도서관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이전의 어떤 학술유통 모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오픈 액세스는 여전히 명확한 개념 규정에서 OAJ의 출판비용 지불주체와 심사제도, 셀프 아카이빙을 위한 원고(출판 전·출판 후)의 선택과 그것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 아카이빙의 주체와 저자 셀프 아카이빙(ASA : Author Self Archiving)에 대한 보상책 마련, 시스템의 호환성 및 안정성, 접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검색시스템의 개발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Harnad의 제안으로 촉발되고 부다페스트 오픈 액세스 회의(BOAI :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IFLA선언, 베데스타 선언(Bethesda Statement on Open Access), 베를린 선언(Berlin Declaration on Open Access) 등으로 구체화된 오픈 액세스의 동향을 정리하고, 문헌정보학으로 한정하여 여러 쟁점을 논급하고자 한다. 특히 오픈 액세스의 발원지가 도서관계이고 그것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문헌정보학 분야의 국내의 OAJ를 분석하고 국내 OAJ를 위한 지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오픈 액세스 운동의 현황과 쟁점

오픈 액세스는 학술지(학술논문) 위주의 학술정보유통이 초래하는 역기능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 양태는 OAJ의 발행과 OAA로 양분될 수 있는데 각각의 동향, 영향,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오픈 액세스 학술지의 현황과 영향

OAJ의 태동과 발전에는 여러 단체 및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많은 정책적 선언과 활동이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1998년 미국 연구도서관협회(ARL)가 주도하여 설립된 SPARC(the Scholarly Publishing and Academic Resources Coalition)은 불가상승율의 3배 이상으로 급등하는 학술지 가격부담으로 초래되는 학술정보유통의 위축현상을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현재 각국의 300여개 기관(대학, 도서관, 학회 중심)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SPARC이 제안한 새로운 학술지 유통모델은 연구자가 검증받은 양질의 연구논문을 저렴한 가격으로 입수할 수 있도록 하며, 출판사와 협력하여 새로운 학술유통 모델을 형성하고 치솟는 학술지 가격으로 힘들어하는 도서관계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 교수나 연구자를 중심으로 수행되는 학술연구가 더 확장되고 활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연구성과는 대체 학술지 즉, OAJ에 게재된다.¹⁾ 이어 BOAI, 베데스타 선언, 베를린 선언, IFLA 선언 등으로 이어지며 오픈 액세스 운동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지지가 계속되었다.

OAJ는 기존의 구독기반 학술지 모형과 다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형을 요구한다. OSI(Open Society Institute)와 SPARC의 후원으로 Lund대학 도서관이 운영하는 DOAJ(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에는 2007년 2월 10일을 기준으로 모든 주제와 언어 영역을 포함하는 2,563종의 OAJ가 등재되어 있다. 이 가운데 764종은 논문단위로 검색할 수 있으며, 126,313건의 논문이 등록되어 있다.²⁾ <그림 1>은 DOAJ, J-STAGE, SciELO에서 수집한 1,190종의 OAJ 가운데 TS-ISI 인용 DB에 색인된 학술지(239종)의 주제별 분포이다.³⁾ 특히 의학·물리학·화학 분야의 OAJ 발간이 활발한 반면에 사회과학·예술·인문과학 분야는 저조한 편으로 전체 TS-ISI 인용DB 등재지(8,818종)의 약 2.7%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하다. OAJ의 대륙별 분포는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북미(58종)보다 유럽(64종), 아시아 태평양(79종)에서 활발한 편인데 그 이유는 대체지가 필요한 국가들의 자구책에서 기인한다. 이들 가운데 유럽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는 자국에서 발행하는 학술지가 영향계수의 산출대상이 되는 학술지에 포함되지 못하고, 자국의 연구비로 생산된 연구결과는 북미 등 학술 강대국이 소유하는 거대 출판사의 학술지에 게재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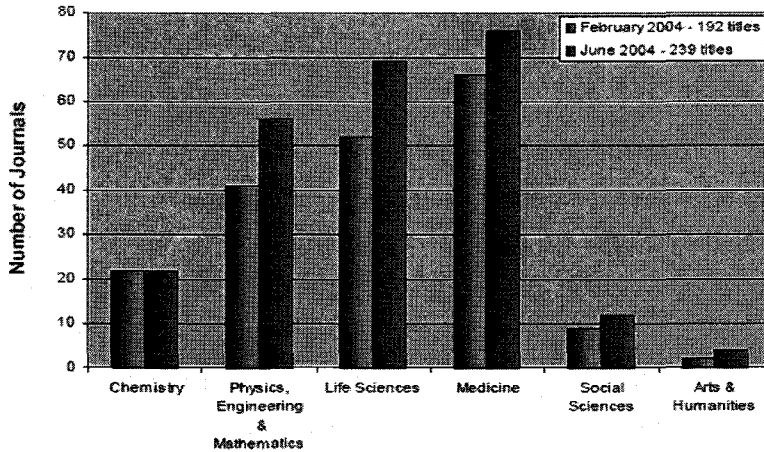
1) <<http://www.arl.org/sparc/about/index.html>> [cited 2006. 12. 26].

2) DOAJ Home page, <www.doaj.org> [cited 2007. 2.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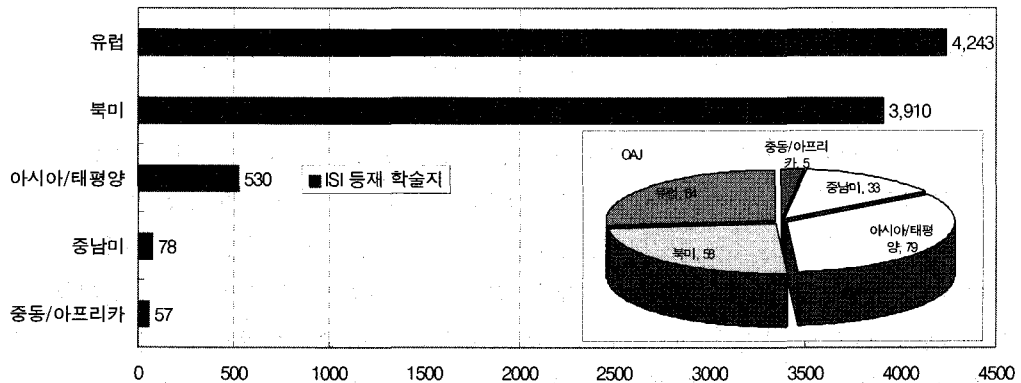
3) M.E. McVeigh, "Open Access Journal in the ISI Citation Database: Analysis of Impact Factors and Citation Patterns." <<http://scientific.thomson.com/media/presentrep/essayspdf/openaccesscitations2.pdf>> [cited 2006. 12. 1].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8권 제1호)

며, 도서관은 자국 연구자의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를 역수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됨으로써 예산낭비와 정보의 종속화가 심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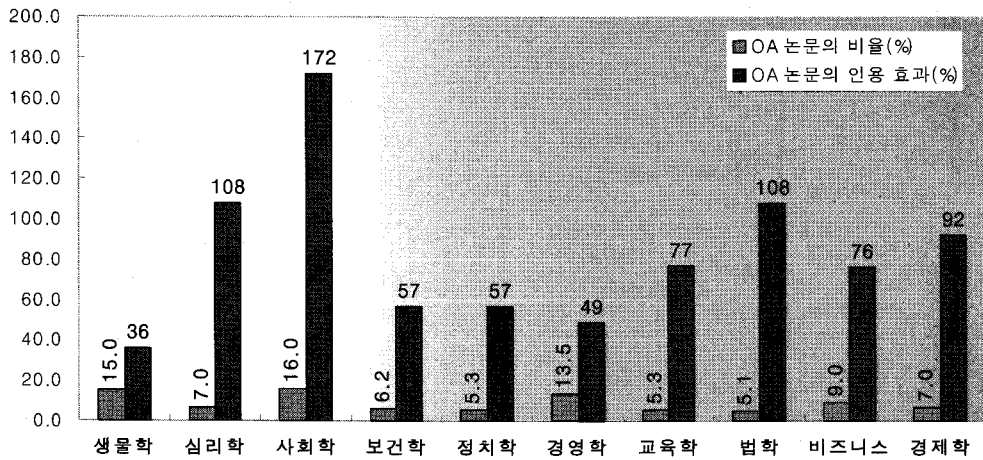
〈그림 1〉 TS-ISI DB 등재 OAJ의 주제별 분포



〈그림 2〉 TS-ISI 등재 학술지 중 OAJ의 대륙별 발행 분포(2004년)

한편, 오픈 액세스 학술논문의 영향력은 〈그림 3〉처럼 점차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용도도 점증하고 있어 대안매체로서의 가능성을 추론하기에 충분하다.⁴⁾

4) S. Harnad and T. Brody, "Comparing the Impact of Open Access(OA) vs. Non-OA Articles in the Same Journals," *D-Lib Magazine*, Vol.10, No.6(2004), <<http://www.dlib.org/dlib/june04/harnad/06harnad.html>> [cited 2006.12.10] ; C. Hajjem, S. Harnad, and Y. Gingras, "Ten-Year Cross-Disciplinary Comparison of the Growth of Open Access and How It Increases Research Citation Impact," *IEEE Data Engineering Bulletin*, Vol.28, No.4(2005), pp.39-47.



〈그림 3〉 학문 주제별 셀프 아카이빙 논문의 인용도

구체적인 사례로 OAJ인 「Atmospheric Chemistry & Physics」의 영향계수가 2002년에는 0.714였으나 2005년 3.495에 달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TS-ISI 「Essential Science Indicators」의 지구과학분야에서 상위 50%에 속하는 학술지로 선정되었다. 이처럼 신생 학술지의 인지도와 영향력이 급신장한 이유는 연구성과가 신속하게 출판됨으로써 가시성(visibility)과 접근성(accessibility)이 높아졌기 때문이다.⁵⁾

그 외에도 Lawrence는 컴퓨터공학분야 OAJ의 인용 영향력이 인쇄잡지보다 336% 더 높다는 것을 검증했으며, Kurts는 천문물리학분야에서, Odlyzko는 수학분야에서 비슷한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⁶⁾ 또한 즉시성 지수(Immediacy Index)의 평균값 상위 46.1%에 분포할 정도로 인쇄잡지보다 빨리 인용되며,⁷⁾ OAJ 논문은 그렇지 않은 논문보다 연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⁸⁾는 OAJ의 장미빛 미래를 짐작하게 한다. 최근 Chang은 통신분야 OAJ인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JCMC)」과 전통적인 구독기반 학술지 「New Media & Society(NMS)」의 웹 인용도 및 영향계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JCMC」의 웹 인용도가

5) In-cites, 2005, <<http://www.in-cites.com/journals/AtmosphericChe-N-Phy.html>> [cited 2006. 12. 5].

6) S. Lawrence, "Online or Invisible?" *Nature*, Vol.411, No.6837(2001), p.521. <<http://www.neci.nec.com/~lawrence/papers/online-nature01/>> [cited 2006. 11. 10] ; Michael J. Kurtz et al. "Worldwide Use and Impact of the NASA Astrophysics Data System Digital Library,"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Vol.56, No.1(2005), pp.36-45 ; A. Odlyzko, "The Rapid Evolution of Scholarly Communication," *Learned Publishing*, Vol.15, No.1(2002), pp.7-19.

7) McVeigh, *op. cit.*

8) K. Antelman, "Do Open Access Articles Have a Greater Research Impact?"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ol.65, No.5(2004), pp.372-382.

현재까지 높았으며 학술지의 구독여력이 낮은 개발도상국 연구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한편, OAJ는 연구자나 도서관계 뿐만 아니라 출판계에도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의학분야 OAJ를 생산하는 상업출판사인 BioMed Central(BMC)은 현재 170여종의 학술지 가운데 30종을 TS-ISI사의 인용색인(SCI)에 등재시킴으로써 학계에서 지명도를 인정받고 있다. BMC의 모든 출판비용은 저자나 기관이 납부한 논문처리비용(article-processing charges)으로 충당되며, 저작권은 저자에게 귀속된다. 발행된 학술지는 출판 즉시 PubMed Central(PMC)에 기탁되므로 일반 이용자는 신속하게 학술논문에 접근하게 되며, 저자는 자신의 연구논문에 대한 피드백을 빠르게 제공받게 된다.

이처럼 OAJ는 출판의 즉시성과 가시성 확대로 인하여 연구자가 선호하는 학술정보 유통매체로 부상하고 있으며, 연구자는 학문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업출판사에 기고한 연구결과를 학술 레포지터리에 공개하여 인용되는 과정을 거쳐 검증과 보상을 받게 된다. 실제로 영국의 연구업적 평가기구인 RAE(Research Assessment Exercise)는 4년마다 대학의 연구업적을 평가해서 등급별로 연구기금을 지원하는데, RAE 평가순위와 총 인용빈도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또한 연구업적은 학술지가 아닌 개별 연구논문과 그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오픈 액세스 학술논문은 인용이나 다운로드 수 등의 영향력 평가에서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OAJ의 장점을 Eysenbach는 과학계에서의 인용 확대, 이용자의 이용편이성, 학문 영역 간의 상호 발전성으로 집약한 바 있다.¹¹⁾

2. 오픈 액세스 아카이브의 유형과 쟁점

OAA¹²⁾는 저자가 직접 자신의 웹 사이트에 아카이빙하는 ASA와 학술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웹 사이트나 arXiv,¹³⁾ CogPrints¹⁴⁾ 같은 주제별 레포지터리에 학술정보를 공개하는 기관 레포지터리(IR : Institutional Repository)로 세분된다. 전자의 경우는 출판 후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출판사가 저자에게 양도하지 않는 한 사실상 개인의 아카이빙이 불가능하다. 반면, 후자는 대학,

9) Yanjun Chang, "The Effect of Open Access on Citation Impact: A Comparison Study Based on Web Citation Analysis," *Libri*, Vol.56, No.3(2006), pp.133-199.

10) U. Poeschl, "Quality Assurance and Peer Review in Open Access," Berlin 4 Open Access : From Promise to Practice, 2006, <http://berlin4.aei.mpg.de/presentations/Poeschl_OA06.pdf> [cited 2006. 12. 5].

11) G. Eysenbach, "The Open Access Advantage,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Vol.8, No.2(2006), p.e8. <<http://www.jmir.org/2006/2/e8/>> [cited 2007. 1. 20].

12) 오픈 액세스 아카이브는 '아카이브'를 '레포지터리'와 동의어로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http://www.openarchives.org/documents/FAQ.html>> [cited 2007. 1. 3].

13) arXiv Home page, <<http://arXiv.org>> [cited 2007. 1. 3].

14) CogPrints Home page, <<http://cogprints.org>> [cited 2007. 1. 3].

학술기관, 연구소에서 웹상에 소속기관 연구원의 연구성과를 무료로 공개하여 접근을 극대화하고 연구자나 기관의 위상을 높이는 수단이다.

오픈 액세스 학술정보 유통모델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출판사별, 학술지별, 레포지터리 운영기관별로 구현되고 있으며, 복수의 모델이 복합적으로 조합된 사례도 존재한다.¹⁵⁾ <표 1>의 9개 모델은 OAJ와 OAA로 대별되며, 전자는 저자가 투고료 내지 출판비용을 부담하는 모델과 저자 대신 기관이 비용을 책임지는 모델로, 콘텐츠 공개의 측면에서는 일부 공개와 전체 공개로, 공개 시점을 기준으로 즉시 공개와 일정기간 엠바고(embargo)를 거치는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 외에도 저개발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오픈 액세스 정책과 상업출판사에서 초록과 목차를 공개하는 모델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33개국이 동참한 OECD의 ‘공적기금을 지원받은 연구 데이터의 접근에 관한 선언’은 오픈 액세스를 공적 기금의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어떤 복합적인 모델로 실천되더라도 의미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¹⁶⁾

<표 1> 오픈 액세스의 유형과 용례

유형	개념	용례
E-print 아카이브	OAA에 저자가 E-print를 셀프 아카이빙	arXive.org, Eprint Service
무료공개형	잡지 출판과 동시에 모든 콘텐츠를 공개	First Monday
이중모드형	구독기반 인쇄형 학술지와 OA 학술지를 동시에 출판	Journal of Postgraduate Medicine
엠바고 설정형	구독기반 학술지를 먼저 출판하고 일정기간(통상 6~12개월) 후 OAJ로 이용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저자 지불형	저자가 출판비용을 지불	BioMed Central
일부 공개형	일부 논문에 한해서만 무료 접근 허용	New York Review of Books
GNP 연계형	1인당 국민총생산량(GNP)을 근거로 저개발국가에만 무료접근 허용	HINARI(WHO)
초록·목차 공개형	학술포털에서 목차나 초록의 공개	Science Direct
기관 지불형	기관회원(대학출판부, 연구도서관)이 OAJ 출판을 지원	German Academic Publishers

한편 SHERPA의 지원 하에 Nottingham대학이 단독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openDOAR¹⁷⁾에서는 주제별 혹은 기관별 레포지터리에 구축된 콘텐츠를 언어별, 국가별, 자료유형별로 검색할 수 있다. 2006년 말을 기준으로 주요 국가의 IR 구축현황은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히 저조하다.¹⁸⁾ 이들의 주제별 현황은 연구기관(부서)이 약 51%(424개)로 절반을 상회하며, 그 대부분을 대학도서관이 구축한 것이다.

15) John Willinsky, "The Nine Flavours of Open Access Scholarly Publishing," *Journal of Postgraduate Medicine*, Vol.49, No.3(2003), pp.263-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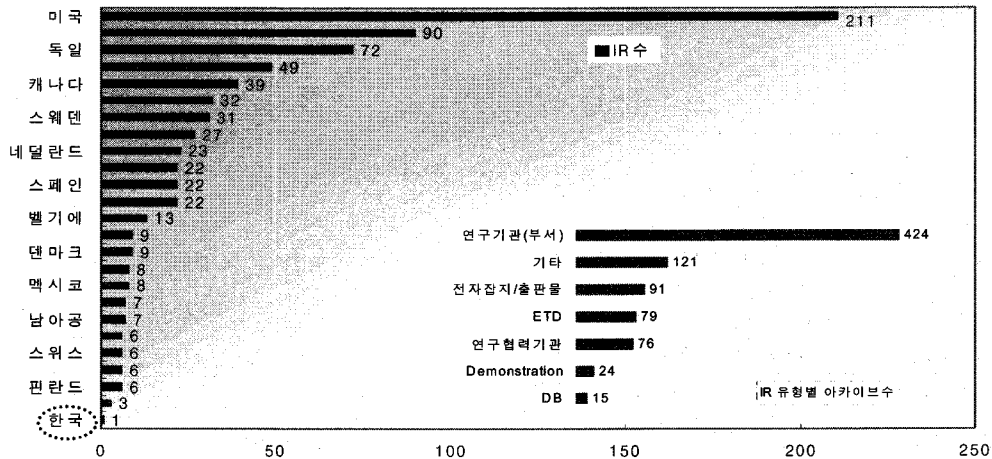
16) <http://www.oecd.org/document/0,2340,en_2649_34487_25998799_1_1_1_1,00.html> [cited 2007. 1. 6].

17) openDOAR Home page, <www.opendoar.org> [cited 2007. 1. 3].

18) <<http://roar.eprints.org/?action=browse>> [cited 2007. 1. 5].

openDOAR 운영진은 레포지토리를 선정하기 위하여 개별 레포지토리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접속가능성, 전문 공개, 정기구독·로그인·접속조건외의 필요성과 서비스되는 콘텐츠의 일관성 여부 등을 조사한다. 국내 OAA로는 서울대학교 물리핵연구정보센터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2006년에 오픈한 'Science Attic(과학다락방)'이 유일하게 등록되어 있다.

그 외에 대학이 주도하는 출판전 논문의 OAA로는 1991년 8월에 출범한 Cornell대학의 arXiv가 대표적이다. 이는 비공식 연구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었으며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의 연구자를 위한 정보격차 해소에 도움을 주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¹⁹⁾되고 있지만, 학술정보 유통과정에서 학술지의 품질을 보증하는 평가기능이 배제된 모델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림 4〉 주요 국가의 IR 현황과 유형별 아카이브수

도서관이 주도한 대표적인 OAA는 생명과학분야 학술지의 디지털 아카이브로 미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의 NBI(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에서 운영하는 PMC가 있다. 2000년 2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출판후 논문만 제공한다는 점에서 arXiv와 구별된다. 저작권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출판후 논문을 1년 내에 제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기탁된 모든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출판사 혹은 개별저자가 보유한다.²⁰⁾ 현재 195종의 학술지에 대한 원문을 제공하고 있으나, 1년간의 엠바고를 공식화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처럼 OAA는 현재 확산일로에 있으나 저작권이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영국의 하원

19) P. Ginsparg, "Winners and Losers in the Global Research Village,"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Electronic Publishing in Science, UNESCO HQ (Paris, 19-23 February, 1996), <<http://xxx.lanl.gov/blur/pg96unesco.html>> [cited 2007. 1. 10].

20) PubMed Central Home page, <<http://www.pubmedcentral.nih.gov/>> [cited 2007. 1. 3].

과학기술위원회(House of Common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와 웰컴재단(The Wellcome Trust), 미국의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 스코틀랜드, 핀란드, 네덜란드 등은 최근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에 대한 오픈 액세스의 당위성을 정책적으로 선언하고 이행을 강제 혹은 권고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은 대학의 연구자, 교수, 학생이 생산한 저작물의 접근성과 가시성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국가 오픈 액세스 위원회를 조직하여 오픈 액세스 운동에 나서고 있다. 세계도서관협회연맹(IFLA)도 2006년 11월 2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Bangalore Conference에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국가 오픈 액세스 정책모형을 제안하였다.²¹⁾

비록 정보의 공개가 정책적으로 강요되고 각 기관은 레포지터리의 운영을 통하여 이를 실천하고 있지만, 상업출판사에 기고한 연구결과는 출판사가 저작권을 저자에게 양도하지 않는 한 기관 레포지터리를 통한 공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Elsevier를 비롯한 일부 상업출판사는 일정한 출판비용을 지불한 논문에 한하여 저작권의 양도 및 셀프 아카이빙을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²²⁾ 반면, 아직 오픈 액세스 정책에 대한 입장표명을 유보하거나, 극히 일부 논문이나 저자의 출판전 원고만 아카이빙을 허용하는 출판사도 적지 않다. SHERPA/RoMEO는 EPrints²³⁾에 등록된 209개 상업출판사와 그들이 발행하는 학술지(9,313종)의 오픈 액세스 정책을 조사하였는데 <그림 5>처럼 94%의 학술지가 비용을 부담한 저자의 출판전 혹은 출판후의 논문에 대한 IR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출판 후 논문의 오픈 액세스를 허용하는 정책(FULL GREEN)을 펴는 출판사는 148개(71%)이며, 21개(10%) 출판사는 출판전 원고만 셀프 아카이빙을 허용하는 정책(PALE GREEN)을 채택하고 있다. 나머지 40개(19%) 출판사는 아직 오픈 액세스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²⁴⁾

오픈 액세스 운동은 저작권 자체의 수정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 학술논문에 한하여 출판사가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유재라는 속성을 공공재로 변환하여 학술정보유통을 촉진하고 가격의 장벽으로 계약을 받는 일반 이용자와 도서관의 정보접근을 최대화하자는 취지의 운동이다.²⁵⁾ 따라서 상업출판사가 개별 저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별다른 제약 없이 셀프 아카이빙을 허용하고,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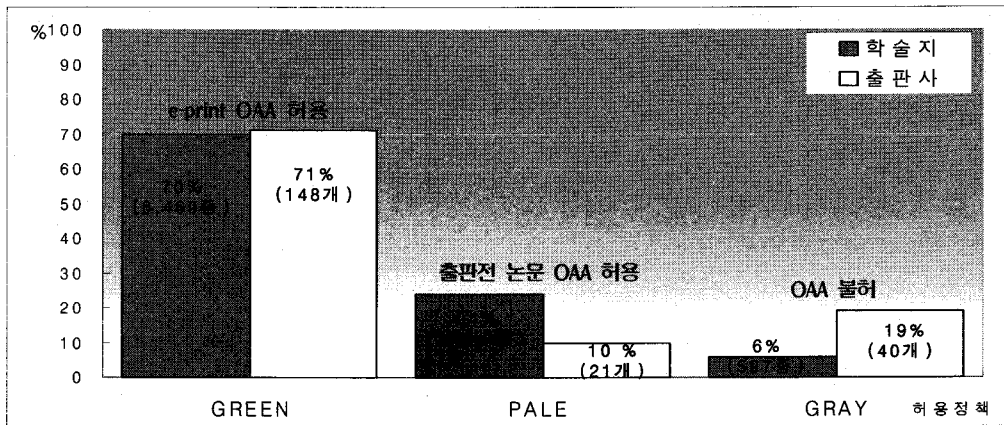
21) <<http://www.ncsi.iisc.ernet.in/OAworkshop2006/pdfs/NationalOAPolicyDCs.pdf>> [cited 2007. 1. 20].

22) 2006년 5월 24일 Elsevier가 'Sponsored-Article Hybrid Journal Model'을 제안하였으며 이후 John Wiley & Sons(2006.8.8)는 Funded Access Hybrid Journal Program,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2006. 8. 14)는 Author Choice Hybrid Journal Program, The American Physical Society(2006. 8. 16)는 Free to Read Hybrid Journal Program, The American Society of Plant Biologists(2006. 9. 25)는 Hybrid Journal Program, Taylor & Francis(2006. 9. 28)는 iOpenAccess Hybrid Journal Program을, The Royal Society of Chemistry(2006. 10. 3)는 Open Science Hybrid Journal Program을 각각 발표하여 저작권 양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3) EPrints Home page, <<http://www.eprints.org/>> [cited 2007. 1. 3].

24) <<http://romeo.eprints.org/stats.php>> [cited 2006. 12. 20].

25) Peter Suber, "Removing the Barriers to Research," *College & Research Libraries News*, Vol.64, No.2(2003), pp.92-94.



〈그림 5〉 SHERPA 등록 학술지 및 출판사의 OAA 허용 여부

자들은 주제별 혹은 기관별 레포지터리에 연구결과를 신속하게 등록한다면 레포지터리는 활성화될 것이고 학술계는 그 만큼 풍부한 자원을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OAJ가 아닌 구독기반 학술지의 경우, 상업출판사가 개별 저자나 기관에게 저작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논문처리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면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할 것이다.

요컨대, OAA는 논문을 발표하는 저자, 출판사의 오픈 액세스에 대한 허용, 적절한 하비스팅 프로토콜을 이용한 레포지터리의 운용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검색엔진 등 각각의 요소들이 제 역할을 다할 때 보편화될 수 있는 학술정보 유통모델이다. 해마다 2만 4천여 종의 심사학술지에 약 250만건의 학술논문이 게재되지만 2.5%가 셀프 아카이빙을 통하여 동료 연구자나 이용자에게 공개된다.²⁶⁾ 그러므로 도서관이나 기관 차원에서 연구자의 아카이빙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부여, 시스템의 지원,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지 못하면 OAA는 답보상태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Ⅲ. 국내외 문헌정보학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 동향 분석

1. 외국 오픈 액세스 학술지 및 아카이브의 동향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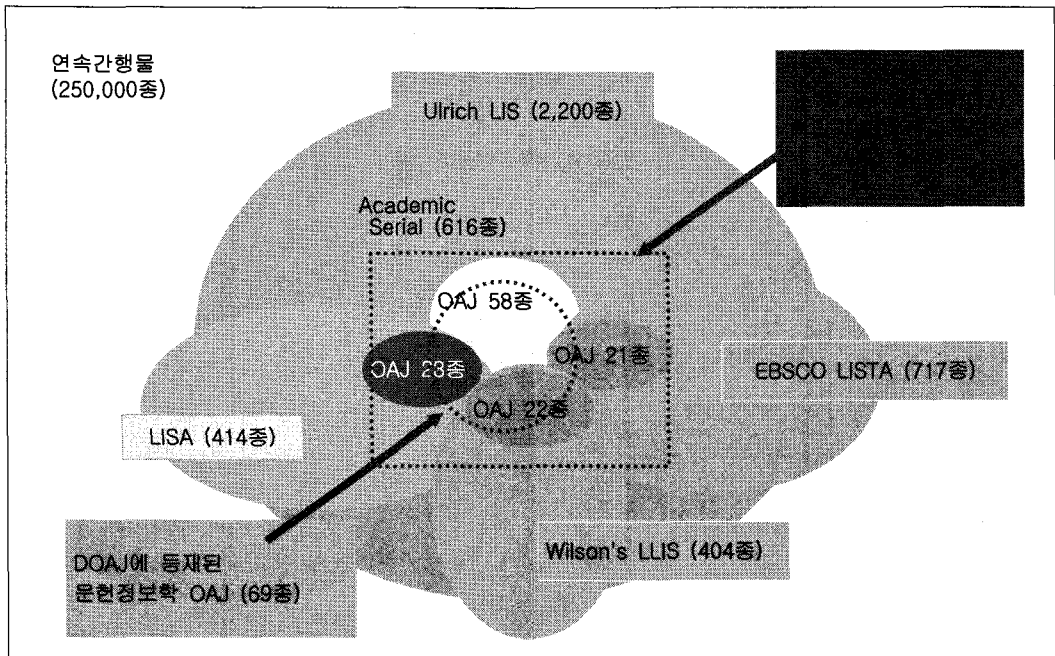
가. 오픈 액세스 학술지의 동향과 한계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학술지의 대표적인 서지DB는 Ulrich's Periodicals Directory, 거대 정보

26) S. Harnad, "Maximizing Research Impact Through Institutional and National Open-Access Self-Archiving Mandates," In *Proceedings of CRIS2006. Current Research Information Systems: Open Access Institutional Repositories* (Bergen, Norway, 11-13 May 2006), <<http://ct.eurocris.org/CRIS2006>> [cited 2007. 1. 20].

제공사인 EBSCO사의 LISTA(Library · Information Science & Technology Abstracts), Wilson사의 LLIS(Library Literature & Information Science Index), 문헌정보학분야의 대표적인 서지 DB인 LISA(Library Information Science Abstract)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DB에서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술지 규모를 추정하고, 그 가운데 OAJ와 DOAJ 사이트에 등재된 문헌정보학 OAJ를 대상으로 영향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Ulrich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헌정보학 현행 잡지는 약 2천 2백종이며, 심사제를 적용하는 학술지는 246종에 이른다. 한편, EBSCO사의 LISTA와 Wilson사의 LLIS에는 각각 717종과 404종이, LISA에는 414종이 등재되어 있다. 그 중에서 OAJ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림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Ulrich(58종), EBSCO(21종), Wilson(22종), LISA(23종), DOAJ(69종)²⁷⁾에서 중복된 타이틀을 제외하면 총 83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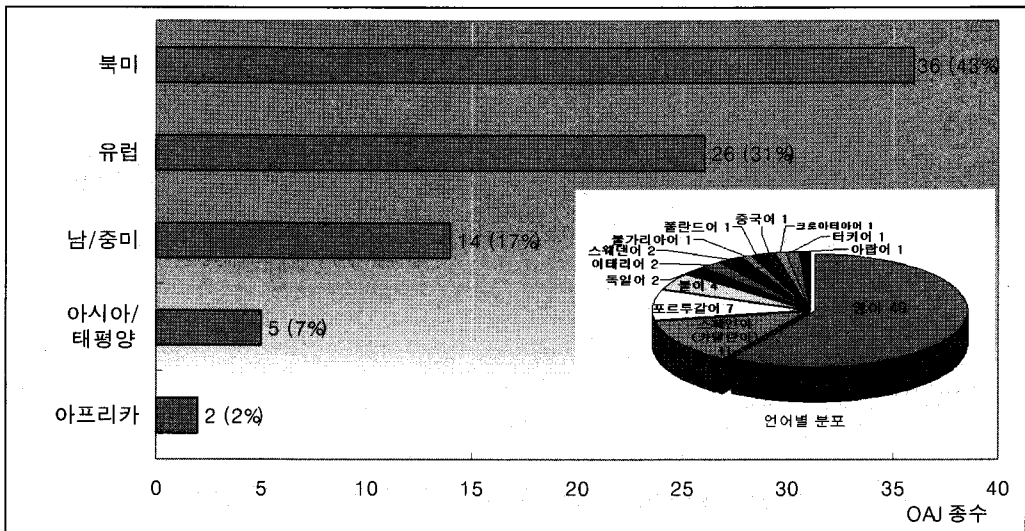


<그림 6> 문헌정보학분야 OAJ 발행 및 주요 DB 등재 동향

27) DOAJ의 문헌정보학 잡지는 71종이지만, 『Journal of Southern Academic and Special Librarianship』은 2001년부터 『E-JASL: The Electronic Journal of Academic and Special Librarianship』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1911년 Vol.1부터 현재까지 오픈 액세스로 접근 가능)는 2002년부터 『Journal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2종을 제외하면, 현재 발간 중인 DOAJ의 문헌정보학 잡지는 69종으로 DOAJ에 등재된 전체 OAJ(2,514종)의 2.8%에 불과하며, 논문단위로 전문검색이 가능한 749종의 9.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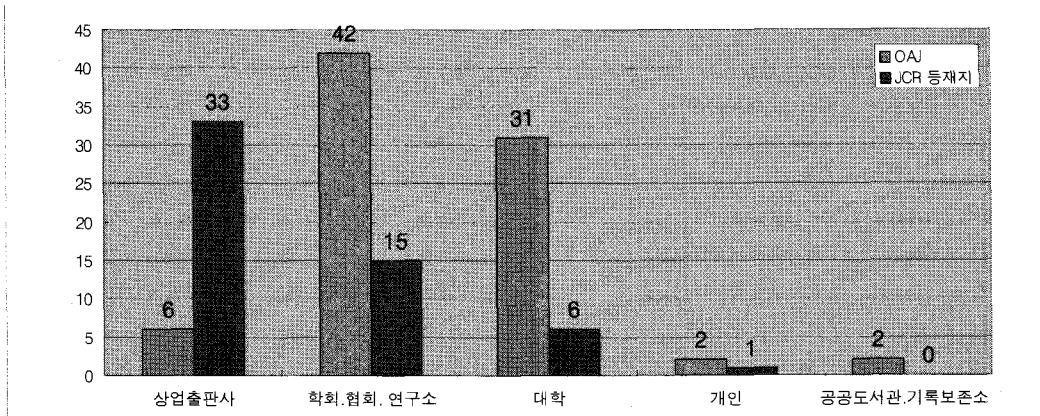
한편 DOAJ에 등재된 문헌정보학 OAJ(69종)를 다른 DB와 비교한 결과 Ulrich 53종, EBSCO 16종, LISA 18종, Wilson 12종만 확인할 수 있었으며, 5개 DB에 공통적으로 등재된 OAJ는 4종(「Chinese Librarianship」, 「E-JASL」, 「Issues in Science and Technology Librarianship」, 「North Carolina Libraries」) 뿐이었다. 따라서 이용자가 어떤 DB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

각 DB에서 중복된 타이틀을 제외한 문헌정보학 OAJ(83종)의 대륙별, 언어별 분포는 다음 <그림 7>과 같다. 문헌정보학에 속하지 않고 다른 주제(예를 들면 컴퓨터 공학)²⁸⁾에 분류된 타이틀이 있었으나, 상기한 DB 가운데 어느 하나의 DB에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문헌정보학 OAJ로 간주하였다. 이들의 출판 주체별 분포는 <그림 8>처럼 비영리 학회, 협회, 연구소와 대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업출판사의 잡지는 6종에 불과하다. 반면에 2005년 JCR(Journal Citation Reports)의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문헌정보학 잡지(55종) 가운데 33종이 상업출판사 잡지이며, 나머지 22종만이 협회나 단체 및 대학출판부가 발행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JCR 등재지 가운데 OAJ는 단 2종(「Information Research」, 「Journal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JMLA)」)에 불과하다.



<그림 7> 문헌정보학 OAJ(83종)의 대륙별, 언어별 분포

28) 「First Monday」(ISSN 1396-0458)는 Ulrich에서는 컴퓨터, 인터넷 잡지로 분류되어 있으나, EBSCO, WILSON, LISA에서 모두 문헌정보학 잡지로 분류되어 있다. Ulrich에서 문헌정보학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DB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헌정보학 OAJ는 21종이다.



〈그림 8〉 문헌정보학 OAJ 및 JCR SSCI 등재 학술지의 출판 주체별 비교

Coleman이 TS-ISI DB에 수록된 문헌정보학 학술지(52종)에 대한 출판사별 저작권 양도 조항(copyrights transfer agreements)을 조사한 결과, 일정한 출판비용을 지불하면 저자가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어 사실상 셀프 아카이빙을 허용하는 잡지는 20종(OAJ 2종 포함)이었다.²⁹⁾ 그러나 아래에 열거한 20종은 셀프 아카이빙을 허용하므로 오픈 액세스 운동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SPARC이 제안한 OAJ와는 다르다. 나머지 32종은 저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아 개인이나 기관 서버에 탑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해당 학술지를 구독하거나 접근비용(access toll)을 지불하지 않는 한 일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없다.

- Aslib Proceedings
- College & Research Libraries
- **Information Research (OAJ)**
- Information Society
- Information Systems Journal
-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
- Interlending & Document Supply
- International Journal of Geographical Information Science
- Journal of Documentation
-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Journal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OAJ)**
-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 MIS Quarterly
- Online Information Review
- Program-Electronic Library and Information Systems
-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 Scientometrics

결국 연구집단이 기존의 유료(구독) 학술지를 이용 및 인용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고, OAJ가 연구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JCR 같은 DB에도 극히 일부만 등재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연구집단의 오픈 액세스 출판에 대한 인식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Rowlands와

29) A.S. Coleman, "Self-Archiving and the Copyright Transfer Agreements of ISI-Ranked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s," 2006, <<http://dlist.sir.arizona.edu/1041/>> [cited 2006. 12. 5].

Nicholas가 TS-ISI DB 등재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한 경험이 있는 각국의 연구자(5,513명)를 대상으로 열린 액세스 출판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63%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³⁰⁾ 이러한 인식도는 SCI 등재 학술지에 기고하는 연구자들이 OAJ에 참여하지 않는 한 질적 수준과 인지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OAJ의 접근성과 가시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2003년 OAJ로 전환할 당시의 「JMLA」 영향계수가 0.408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 1.225로 급격히 높아졌듯이 OAJ의 영향력이 증대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와는 반대로 Hunter는 열린 액세스 출판의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심사제도의 부실과 그에 따른 논문의 질적 저하, 학술논문의 생산자이자 주이용자 집단인 연구자의 논문 게재료 부담 등을 한계로 지적하였다.³¹⁾ Rowlands는 OAJ를 ‘기존의 인쇄형 학술지로부터 거절당한 논문의 집적소’로 평가절하하면서 그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³²⁾

요컨대 OAJ는 게재료 수입의 확보에 대한 유혹과 엄격한 동료심사의 부재 및 과도한 학술논문의 출판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논문과 학술지의 질적 저하로 학술유통 모델에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 기존의 구독기반 학술지보다 즉시적 이용의 편의성은 높지만, TS-ISI DB처럼 공신력 있는 기관의 등재학술지가 아닌 제도권 밖의 미검증 학술지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구자의 인식도나 지지율을 확보하고 그 영향력을 정당하게 측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OAJ에는 다양한 출판모델이 존재하므로 도서관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활성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도서관계가 DOAJ와 같은 포털 사이트나 주제 레포지토리를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의 편의성이나 논문의 가시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다.

나. 열린 액세스 아카이브의 동향과 과제

문헌정보학 분야 최초 OAA는 2002년에 미국의 Arizona대학 문헌정보학과 및 교육기술센터가 설립·운영하는 DLIST(Digital Library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이며 현재 871건의 자료가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2003년에 설립된 문헌정보학 분야의 대표적인 주제 레포지터리인 E-LIS는 세계 자원봉사자들이 행정적, 기술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등록된 논문수는 완만하게 증가하여 현재 4,992건에 달한다. E-LIS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도서관계의 연구, 학술논문 및 보고서, 발표 등의 정보에 대한 유통을 촉진하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³³⁾

30) Ian Rowlands, Dave Nicholas, "The Changing Scholarly Communication Landscape: an International Survey of Senior Researchers," *Learning Publishing*, Vol.19, No.1(2006), p.44.

[<http://www.ingentaconnect.com/content/alpsp/lp/2006/00000019/00000001/art00005>] [cited 2006.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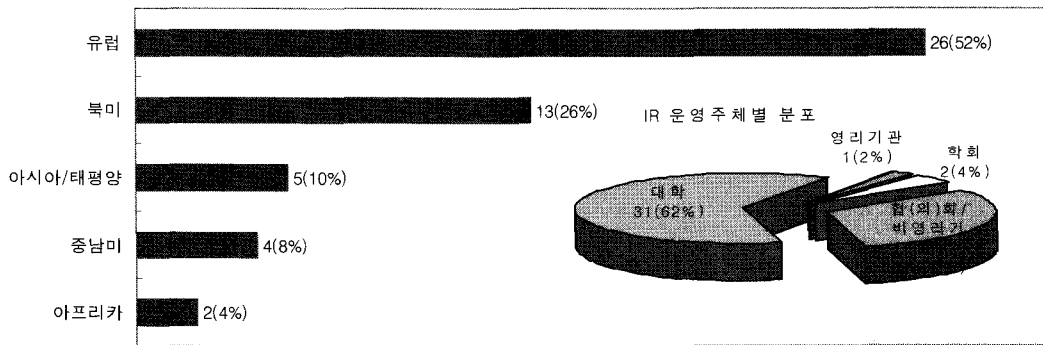
31) K. Hunter, "Critical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STM Journal Publishing," *Learned Publishing*, Vol.18, No.1(2005), pp.51-55. PLoS의 경우 논문 1편을 기고하는데 1,500\$을 저자가 부담해야 한다.

32) Ian Rowlands, "Do Authors Demand Open Access?" *STM Publishing : at the Crossroad? : Challenges and Response : 2004 STM Annual Conference* (Frankfurt, 5th October, 2004).

33) Andrew Waller, "E-LIS: The Open Archive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etter of the LAA*,

그 외에 문헌정보학 분야의 주요 레포지터리로는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e-prints, CaltechLIB, CCSD: @rchiveSIC, CCSD: MémSIC, CNR Bologna Research Library, LDL(Librarians' Digital Library),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VirginiaTech Computer Science Technical Reports 등을 들 수 있으며 현재 openDOAR에 등록된 레포지터리는 50개에 달한다. 이들의 국가별 및 운영주체별 분포를 도시한 <그림 9>에서 14개는 문헌정보학 주제 레포지터리이며, 9개는 대학 및 국가연구기관이 전주제를 대상으로 논문, 단행본, 회의자료, 수업자료,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수록하고 있다.

openDOAR에 등록된 문헌정보학 레포지터리의 대륙별 분포는 유럽이 26개(52%)로 가장 많고, 국가별로는 미국(10개), 영국(8개), 프랑스(4개), 호주(3개)의 순이다. 운영주체별로는 대학의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이 운영하는 레포지터리가 31개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호주도서관협회가 ALIA e-prints를, 독일의 도서관 및 사서 전문가협회가 OPUS-Datenbank BIB를 운영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등록된 콘텐츠의 유형별 분포는 출판후 논문을 게재하는 레포지터리가 13개로 가장 많으며, 기타 학위논문·회의록·단행본·미간본 자료를 아카이빙하는 기관도 있다.



<그림 9> openDOAR에 등록된 LIS IR의 대륙별 및 운영주체별 분포

ASA와 IR로 세분되는 OAA는 출판사가 개별 논문에 적용하는 저작권 정책에 따라 아카이빙의 가능성이 결정된다. 출판후 논문의 경우 상업출판사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실제 얼마나 셀프 아카이빙 되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출판사는 셀프 아카이빙이 자신들의 구독모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³⁴⁾ 구성원과 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에 따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도 다양해질 수 있다. 반면에 기관 레포지터리는 대학이나 전공분야의

No.152(2006), p.11, <<http://eprints.rclis.org/archive/00007521/>> [cited 2007.1.3].

34) Hunter, *op. cit.*

지적 산출물을 보존하고 웹상에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게 하려면 저자가 e-print를 등록하도록 해야 하며, 재생산과 배포를 위한 저작권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가 오픈 액세스 콘텐츠를 이용할 때, OAJ나 개별 논문이 아카이빙된 레포지토리를 알아야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일정 기준을 통과하여 DOAJ나 OPEN J-Gate에 등재된 학술지는 검색 및 전문 이용이 가능하고, 그 외 Web of Science나 Scopus에서도 논문단위로 검색할 수 있지만 완전하지 못하다. 그리고 Swan과 Brown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별, 기관별 혹은 주제별 OAA를 검색하는 연구자는 Scirus, Citebase Search, OAIster 순으로 검색엔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³⁵⁾ 최근에 Google Scholar의 등장으로 웹상에서 오픈 액세스 논문에 대한 접근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검색성능에 한계가 있다.

한편, E-LIS와 같은 주제 레포지토리에 등록되는 논문수의 증가추이는 완만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연구자들이 게재가 확정된 후에 논문을 레포지토리로 보내고, 아직도 인쇄잡지를 연구결과의 배포채널로 선호하고 있으며, 상업출판사의 저작권 및 셀프 아카이빙에 대한 제약조건과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³⁶⁾ 또한 저자가 저작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이 OAJ의 평균 부담액인 275달러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 연구정보의 국제적 공유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어떤 추가 편익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저자가 출판비용을 부담하고 저작권을 소유하는 구도가 정착되기 어렵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할 학술지를 선택할 때 셀프 아카이빙의 가능성 여부나 저작권 확보문제보다 학술지의 평판이나 영향계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³⁷⁾도 OAA를 지체시키는 요인이다.

OAA는 저자 주도형 학술정보 공개운동이며, 최대의 저해요소는 비용이 아니라 저작권을 양도 받는데 따른 절차상의 문제와 어려움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성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고 이를 공개하려는 의지를 기반으로 오픈 액세스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부연하면 연구자들이 원고를 제출할 때 오픈 액세스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상업출판사가 주도하는 기존의 학술정보 유통형태를 개선하기 위한 중지를 모을 때 레포지토리의 발전과 정착을 기대할 수 있다.

2. 국내 오픈 액세스 운동의 동향과 지향성

외국의 경우는 국가적 차원 혹은 민간 연구기관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오픈 액세스 출판사를 통

35) Alma Swan and Sheridan Brown, "Open Access Self-Archiving: An Author Study Open Access Self-Archiving: An Author Study," Technical Report, 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 (JISC), UK FE and HE Funding Councils, 2005, <<http://cogprints.org/4385/>> [cited 2006. 11. 30].

36) C.K. Malone and A.S. Coleman, "The Impact of Open Access o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05, <<http://dlist.sir.arizona.edu/967/01/UA-SIRLSNLG2005.pdf>> [cited 2007. 1. 5].

37) Rowlands and Nicholas, *op cit.*, p.34.

하여 학술지가 다수 출판되고 있으며, 논문을 비롯한 연구성과가 주제 레포지터리나 기관 레포지터리에 아카이빙 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오픈 액세스는 어떠한가.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도서관감」의 '도서관관련 주요 학술지 목차'38)에 게재된 학술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과학기술학회마을(이하, 학회마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RISS에서 관련 학술논문의 아카이브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간추리면 <표 2~3>과 같다.

<표 2> 국내 문헌정보학 OAJ 현황 (조사시점 : 2007년 2월16일)

참지명 (출판주체/간기)	발간(권호, 연도) 내역	공개범위와 OAJ 여부	
		공개범위	OAJ 여부
국회도서관보 (국회도서관/월간)	제1권1호(1964)~제44권1호(2007)	제40권3호(2003)~제44권1호(2007)	○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반년간)	제1권1호(1946)~제61권2호(2006)	제53권1호(1988)~제61권2호(2006)	○
도서관문화 (한국도서관협회/월간)	제1권1호(1960)~제48권2호(2007)	제46권1호(2005)~제48권2호(2007)	○
서지학연구 (한국서지학회/계간)	제1집(1986)~제35집(2006)	제1집(1986)~제35집(2006)***	×
정보관리연구 (KISTI/계간)	제1권1호(1968)~제37권4호(2006.12)	제31권1호(2000)~제37권3호(2006.9)	○
정보관리학회지 (동학회/계간)	제1권1호(1984)~제37권4호(2006.12)	제5권1호(1988)~제23권2호(2006.6)* 제1권1호(1984)~제37권4호(2006.12)**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동학회/반년간)	제1권1호(2001)~제6권1호(2006.6)	제1권1호(2001)~제6권1호(2006.6)**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동학회/계간)	제1권(1974)~제37권4호(2006.12)	제1권(1974)~제37권3호(2006.9)* 제1권(1974)~제37권4호(2006.12)**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동학회/계간)	제1권(1970)~제40권4호(2006.12)	제1권(1970)~제40권3호(2006.9)* 제1권(1970)~제40권4호(2006.12)**	×
한국비블리아 (동학회/반년간)	제1권(1972)~제17권2호(2006.12)	제7권1호(1994)~제16권2호(2005)* 제1권(1972)~제17권2호(2006.12)**	×

* 과학기술학회마을(일반공개, OAA), ** 누리미디어 DBPIA(DB 구독기관만 공개, OAA아님),
*** 한국학술정보KISS(DB 구독기관만 공개, OAA아님)

<표 3> 국내 문헌정보학 OAA 현황 (조사시점 : 2007년 2월16일)

레포지터리명	개요
과학기술학회마을 (KIST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5개 학회의 782개 학회지 수록 논문 45만건 • 일반공개(OAA)
RISS (KER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학회 및 대학부설 학술지 수록 논문 93만건 (무료 38만건, 유료 55만건) • 회원에 한하며, 일부 OAA

먼저 OAJ의 경우, 국내 문헌정보학회에서 발간하는 대표적인 학술지(6종)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3종) 및 KISTI에서 발행하는 학술지(1종)에

38)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연감(서울: 동협회, 2006), pp.664-676.

대한 오픈 액세스 현황은 일부 학회지가 영리업체에 출판·배포권을 위탁한 상황이며, 학회마을에서 일부 공개되고 있으나 최신회는 공개가 제한되고 있다. 그 외의 기관지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다음으로 OAA의 경우, 학회마을에는 현재 345개 학회의 782개 학회지가 참여하여 약 45만건의 논문에 대한 원문이 일반인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학회마을에 참여하는 학회는 발간 학술지를 KISTI에 제공하고, KISTI에서는 학술지의 서지사항과 원문을 DB로 구축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한다.³⁹⁾ 이 때 저작권이 학회나 저자에 있는지, 혹은 타기관이나 민간사업자에게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에게 귀속되어 있을 경우는 아카이빙이 불가능할 수 있다. 학회마을에서 원문을 볼 수 있는 문헌정보학 학술지는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이며, 수록된 학술논문 중 최신회는 3~4개월 뒤에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RISS는 회원에 한하여 국내 학회 및 대학부설 학술지 수록 논문(93만건)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 시범운영하기 시작한 dCollection(국가지식정보생성 및 유통체계시스템)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어 오픈 액세스 기반의 실천모델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67개 대학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생산하는 학술정보를 수집·관리·통합 서비스함으로써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시간을 단축하며 대학간 공동이용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외 영리업체인 한국학술정보의 KISS, 누리미디어의 DBPIA가 국내 학술논문의 레포지터리 기능을 수행하지만, 오픈 액세스 정신에 배치되는 유료형이며 서비스가 가능한 학술지와 논문도 제한되어 있다. 특히 각 학회가 저작권과 출판·유통권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여 왔기 때문에 최근 갈등과 부작용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상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OAJ와 OAA는 전술한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걸음마 수준일 뿐만 아니라 많은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외국에서 사례로 접하기 어려운 특이한 현상, 즉 학회와 영리업체간의 협약에 의한 학술논문의 유료화가 세금을 투입한 국가 주도형 OAA의 오픈 액세스 정신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이에 외국 문헌정보학계의 OAJ 및 OAA 동향이 시사하는 바를 중심으로 국내 오픈 액세스 운동의 지향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픈 액세스에 대한 도서관계의 인식제고와 더불어 주도적 실천의지가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오픈 액세스 운동의 태동에서 현재까지의 발전과정을 주도한 집단이 ARL을 비롯한 도서관계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내 도서관계의 자성이 필요하다.

둘째, 모든 연구집단이 적극적인 의지로 참여하지 않으면 오픈 액세스 운동의 양대 전략인 OAJ와 OAA는 발전할 수 없다. 그런데 현재 국가차원과 대학 등 연구기관 차원에서 연구자를 오픈 액세스 운동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 예컨대, OAJ의 심사제도 부실에

39) <<http://society.kisti.re.kr/>> [인용 2007. 1. 20].

서 기인하기는 하지만 대학의 연구업적 평가시스템이나 인센티브 제도에서 OAJ나 OAA를 권장하거나 인정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부진하다.

셋째, 국가주도형 OAJ나 OAA의 명실상부한 모형개발과 사이트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KISTI의 학회마을이나 KERIS의 RISS가 국가 OAA에 근접하지만 콘텐츠의 범위나 무료 공개의 제한성을 감안하면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가령, 국가 및 대학의 공적 연구비로 생산된 연구결과가 학회지에 게재된 경우에 그 논문은 공공재이므로 무료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리업체와의 일괄 계약으로 무료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OAA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국내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 귀속문제가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도서관계 및 연구자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저작권을 학회가 소유하거나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학회가 저자의 허락 없이 영리업체와 계약을 맺고 유료로 봉사함으로써 일반대중의 무료 접근을 원천 봉쇄하는 관행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와 저자가 공유하고⁴⁰⁾ ASA나 IR에 저작권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때 기관차원이든 국가주도형이든 OAA가 활성화될 수 있다.

다섯째, 국내 OAJ의 경우, 각 기관별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인터넷 포털에서 일부 검색이 될 뿐, 외국의 사례처럼 주제화된 레포지터리에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구미 선진국의 사례처럼 오픈 액세스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점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도서관계의 연구동향과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배포·전달할 수 있는 DLIST나 E-LIS와 같은 주제 레포지터리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구축사례가 다른 학문주제로 확대되고, 국가 레포지터리의 구축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의미에서 오픈 액세스를 기대할 수 있다.

여섯째, 오픈 액세스 전략은 모든 이용자가 비용부담이나 접근제한과 같은 제약요소로부터 해방되는 정보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OAJ나 OAA를 구축·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투입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소요비용을 저자에게 부담시키거나 기관이 전부를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국가가 학술지의 OAJ를 지원하거나 대학 또는 기관별 OAA를 위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학술정보의 OAJ와 OAA를 유도하고 이를 국가 레포지터리로 포털서비스하는 오픈 액세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IV. 결론 및 제언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된 오픈 액세스 운동은 민간차원에서 국가주도형으로, 그리고 범국가적인 프로젝트로 확장되고 있다. 그 배경은 학술정보의 독과점 및 사유재화에 따른 학술위기를 해소하는

40) 윤희윤, 이재민, “국내 학회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현황과 개선방안,” 정보관리연구, 제37권, 제1호(2006. 3), p.34.

데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OAJ와 OAA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정보학 분야를 대상으로 OAJ 및 OAA의 현황과 쟁점, 한계를 분석하고 국내 오픈 액세스 운동의 지향성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계는 오픈 액세스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주도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둘째, 오픈 액세스 운동의 핵심전략인 OAJ와 OAA는 연구집단의 적극적 의지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으므로 연구자를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제도적 인정장치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 현재 국가주도형 OAA인 KISTI의 학회마을과 KREIS의 RISS가 무료공개범위와 접근성이 제한적이므로 이에 대한 전향적인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오픈 액세스 운동의 최대 걸림돌은 저작권 문제이므로 학회는 연구자(저자)가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을 소유 내지 공유할 수 있도록 논문 투고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는 학술지의 OAA 및 기관별 OAA 구축을 유인·지원하며 국가 레포지터리로 통합서비스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내에서 오픈 액세스 전략의 요체인 OAJ와 OAA가 새로운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으로 각광 받으려면 여러 측면에서 인식과 의지, 정책과 전략,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외국 문헌정보학계의 동향과 쟁점 및 한계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내에서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OAJ와 OAA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그 논의의 중심에 있는 도서관계가 먼저 형식상 및 내용상의 논리와 절차를 확립해야 다른 학문분야로의 확대가 용이하고 도서관의 위상도 제고될 수 있다. 또한 도서관, 연구집단, 학·협회가 협력하여 학술정보 유통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접근성을 극대화할 때 국가의 지식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